

전쟁과 작가, 또는 작가의 전쟁: 베를린의 러시아 작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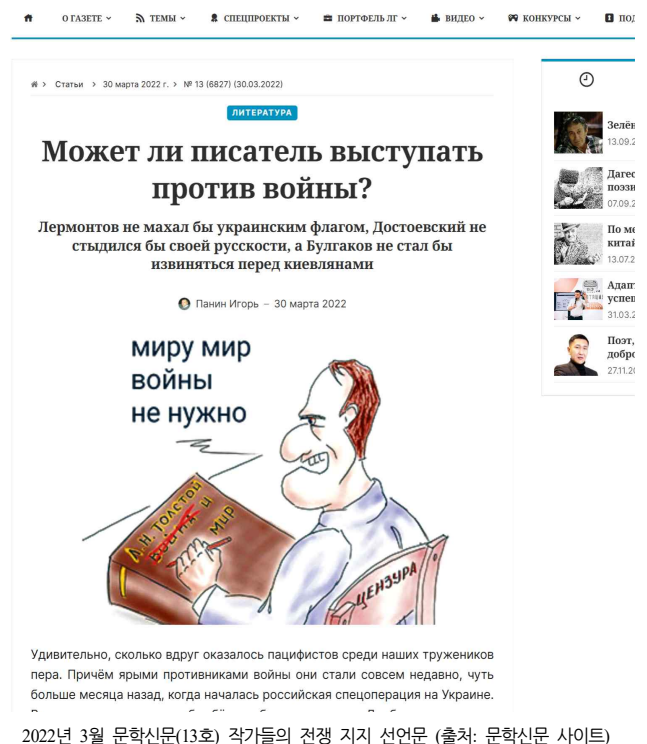
윤영순

경북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류드밀라 울리츠키야, 블라디미르 소로킨, 빅토르 예로페예프...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세 사람 모두 포스트소비에트 시대 나름의 입지를 가진 저명한 작가로 2023년 말 “반러시아 활동과 우크라이나 지지”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 러시아 정부의 ‘이노아젠트(외국 에이전트)’ 목록에 기재된 것,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베를린으로 이주한 것이다. 거기에 드미트리 지가리와 2020년 벨라루스 민주화 항쟁 이후 베를린으로 이주한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까지 더하면 꽤 여러 명의 러시아와 러시아어권 작가들, 특히 반푸틴, 반전 입장을 견지하는 작가들이 현재 베를린에 거주하는 셈이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출신의 피난 예술인까지 더하면 베를린은 어쩌면 ‘이민자 문학의 수도’라는 정확히 한 세기 전의 이름을 다시 찾을지도 모르겠다.

2022년 2월 24일 이후 러시아 작가들은 두 진영으로 분열되었다. 작가이자 기자, TV 진행자로 활동하던 드미트리 지가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수차”라는 제목의 반전 선언문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이전부터 푸틴 정부와 각을 세우고 이미 서구로 이주했던 보리스 아쿠닌과 드미트리 비코프가 이 선언서에 서명했고, 드미트리 글루흐스키, 소로킨 등의 작가와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드미트리 무라토프를 비롯한 언론인과 문화예술계 인사 여럿이 동참했다. 울리츠키야와 예로페예프도 전쟁 반대를 선언하며 러시아를 떠났고, 류드밀라 페트루셴스카야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반전과 반푸틴 입장

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전쟁을 지지하는 작가들도 상당수였다. 2022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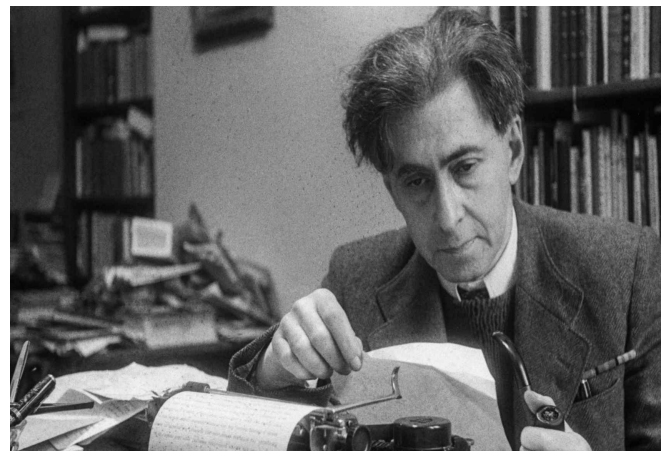
월 문학신문(No.13)에 게재된 시인 이고리 파닌의 전쟁 지지 선언문 “작가가 전쟁에 반대할 수 있는가?”에는 5백 명이 넘는 작가와 문필가들이 동참했다. 문학신문 편집국에서 꽤 오래 일해왔던 파닌은 이 선언문에서 “갑자기 평화주의자가 된 작가들”이 많다고 비꼰다. 그는 푸시킨을 비롯하여 러시아 작가들의 애국적 지향은 비록 전제주의 체제엔 저항했을지라도 조국에 대한 모독에는 적극적으로 대항하며 외국과의 전쟁에는 참전했다고 강조했다. 파닌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수 군사작전’은 오랫동안 돈바스 지역에서 이뤄진 러시아인들에 대한 제노사이드와 그 지역에서 확산하는 나치즘 때문이라는 푸틴의 입장을 지지한다. 이렇게 전쟁은 작가들을 분열시켰고, 작가들은 그들의 전쟁을 시작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날 러시아를 떠난 반체제 작가 대다수가 베를린에 자리를 잡았다는 점이다. 혁명 이후 망명 작가와 예술가들이 가장 많이 모여든 곳이자, 나치의 위협이 코앞에 닥칠 때까지 가장 큰 규모의 러시아 디아스포라가 형성됐던 곳도 바로 베를린이었다. 1920년대 초 기준, 30만 명 이상의 러시아 출신 이민자가 베를린에 모여들었고, 상당수의 작가와 지식인과 예술가가 그곳에 집을 풀었다. 비록 십 년 내에 프랑스로, 미국으로, 다시 소련으로 뿔뿔이 흩어졌지만, 망명 문인들은 1920년대 베를린에서 상당한 예술적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은 베를린에 있으면서도 러시아어로 문학잡지를 발간했으며, 공동체를 형성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러시아 정신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했다.

그런데 지난 세기 베를린에서는 지금처럼 경직된 대립 구도는 오히려 형성되지 않았다. 망명 작가들은 그곳을 방문한 친 소비에트 계열의 작가들과도 긴밀히 소통했고 베를린은 나름대로 열린 문학적 토론의 장이 되어주었다. 1920년대 베를린에 거주하거나 방문했던 작가들로는 막심 고리키, 블라디미르 나보코프, 빅토르 시쿨롭스키, 세르게이 예세닌, 안드레이 벨리, 일리아 에렌부르크 등이 있다. 연구자들에 의하면 800명 이상의 러시아 출신 작가와 문필가가 그곳에 살았고, 87개의 출판사가 있었으며, 20개 남짓한 서점이 운영되었으니, 다양한 문학 그룹과 사조가 생기고 사라지던 모스크바와 더불어 가히 러시아 문학의 또 다른 수도라고 불릴만했다.

그런데 왜 하필 베를린이었을까? 당시 조국을 떠나야 했던 많은 지식인과 작가는 자신들의 이주가 영원한 것이 되리라고는 예상하진 않았다. 그들은 곧 돌아가게 될 조국에서 멀지 않다는 이유로 베를린을 선택했던 것 같다. 그러니 당시 작가들은 독일에 익숙해지려고 특별히 노력하지 않았고, 특정 지역에 모여 살면서 러시아어로 소통하고 집필했으며 자신들이 기억하는 러시아와 러시아인에 관한 글을 썼다. 1921년부터 3년 동안 베를린에 거주했던 에렌부르크는 『카페에서 보낸 편지』에서 “이 사람들이 왜 전부 베를린에 사는지 알 수 없다. 돈, 아니면 비자 때문에? 망명객들이거나 돈 없는 여행자들인가? 어떤 경우라도 대부분은 이 도시에 만족하지 못해서 베를린을 욕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라고 썼다.

결국 당시 베를린은 러시아 디아스포라 작가들에게 정주해야 하는 도시가 아니라 일종의 플랫폼과 같은 연결의 공간이었다. 러시아 작가들은 베를린에 정을 주지 않았고, ‘치루하고 낯선 도시’로 베를린을 받아들였다. 비교적 오랜 기간 베를린에 머물렀던 나보코프도 독일인들과 소통하지 않고, 독일의 신문이나 책도 읽지 않아도, 심지어 독일어를 모른다고 해도 특별히 불편하지 않았을 거라고 쓰고 있다. 그러니 나치의 득세가 아니더라도 다수의 작가가 프랑스나 미국으로 떠나고, 벨리와 에렌부르크 등 일부는 소련으로 귀환한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일리아 에렌부르크(1891~1967) (출처: www.culture.ru)

이렇게 100년 전 러시아 작가들에게 제1차 세계대전 패전



의 흔적이 남아 있던 베를린이 어쩔 수 없는 선택지였다면, 지금의 작가들에게 베를린은 오히려 선택과 기회와 땅이다. 21세기 유럽연합(EU)의 최고 부국인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러시아 반정부 인사와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품을 내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독일의 연구비 지원 기관(DFG)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독일에는 전쟁 이후 놀랍도록 신속하고 간단한 시스템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쪽의 이민자, 과학자를 비롯하여 문화 예술인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다. 초청인이 있으면 어느 대학에서건 연구할 수 있고 급여 출처는 프로그램은 국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부터 특별 지원 프로그램, 일반 난민을 위한 생활 지원 프로그램까지 다양했다. 최소한 21세기에 베를린으로 날아온 작가들, 특히 저명한 사들은 1세기 전의 선배들처럼 바텐더나 택시 운전사로 일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러니 러시아 측에서 망명 작가들을 서구의 입맛에 맞게 글을 쓰거나 나팔수 노릇을 하는 ‘외국 에이전트’로 규정하고 일종의 매국노 명단처럼 그 목록을 갱신·확대하는 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



블라디미르 소로킨(1955~) (출처: www.lenta.ru)

베를린을 ‘커다란 작업실’로 언급했던 예로페예프는 최근 『위대한 양아치』를 독일어로 발간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서 러시아어로 번역했다. ‘위대한 양아치’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소로킨은 3부작 소설 『유산』을 작년에 출판했다. 100년 후 분열되고 파괴된 러시아의 폐허에서 일어나는 허무맹랑한 사건은 그의 2006년 작 『근위대의 하루』의 문제의식과도 닮아 있다. 2028년의 러시아를 중세적인 전제 정치로의 복귀로, 일종의 디스토피아로 그렸던 이 작품처럼 『유산』은 미래의 러시아가 과거와 닮아 있음을 이야기한다. 소로킨의 트레이드마크인 폭력과 유혈이 낭자한 카니발적 식인 행위와 폭력, 기존 러시아 문학에 대한 해체와 모독으로 채워진 이 작품에서 작가는 러시아적 중세와 근대, 그리고 현대가 미래에 남길 유산이 과연 무엇인지를 묻고 있다. 소로킨은 창작 활동 외에도 독일을 비롯한 여러 유럽 언론 및 러시아 반체제 언론사들과 활발하게 만나서 반전, 반푸틴 입장을 견지한다. 러시아 정부는 최근 베를린을 중심으로 국외 체류 중인 다수의 망명 작가와 언론인을 반국가행위로 궤석재판에 회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국제 수배령을 내린 바 있다.

지금 베를린의 러시아 작가들은 과연 (언제) 러시아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그들도 더 멀리, 파리로, 뉴욕으로 떠나야 하는 20세기의 역사가 반복될 것인가? 갈등과 증오, 폭력과 전쟁이라는 위기 상황을 반복적으로 맞고 있는 21세기의 인류에게 20세기의 역사는 아무런 해답을 줄 수 없는가? 이 많은 질문은 여전히 답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역사는 순환한다는 비코의 유명한 명제, 또는 우리는 ‘세컨드 핸드 타임’을 살고 있다는 알렉시예비치의 말을 소환하며 인류는 왜 과거의 역사로부터 배울 수 없는지를 물어야 할 때이다. **RS**

